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국 노동 시장 둔화 신호 보인다
- Bloomberg: 미 연착륙은 임금 인플레이에 달려있다
- Time지: 미 경제 좋지만, 저소득층에게 힘들어
- Bloomberg: 미국인 자동차 부채가 쌓이고 있다

#### [미국 금융]

- Reuters: 현재 달러 약세, 위안화와 유로화는 강세
- Bloomberg: 미 기업들의 질적인 수익은 30년 만에 최악

#### [부동산]

- CNBC: 미 주택 모기지 수요, 28년래 최악

#### [Covid 19]

- Bloomberg: FBI 국장, “코로나19 중국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 높다”

#### [글로벌 경제]

- SCMP: 미 기업들, “중국 더 이상 상위 3대 투자처 아니다”
- CNBC: 세계 최대 해운사 MSC, “세계 경제 낙관적이다”

#### [IT 향후 추세]

- Fast Company: 전문가 40명이 선정한 2023년 주목할 IT 동향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유튜브, 크리에이터 위한 AI 기반 도구 추가
- WSJ: Wendy's, 매출 성장 위해 구조조정 단행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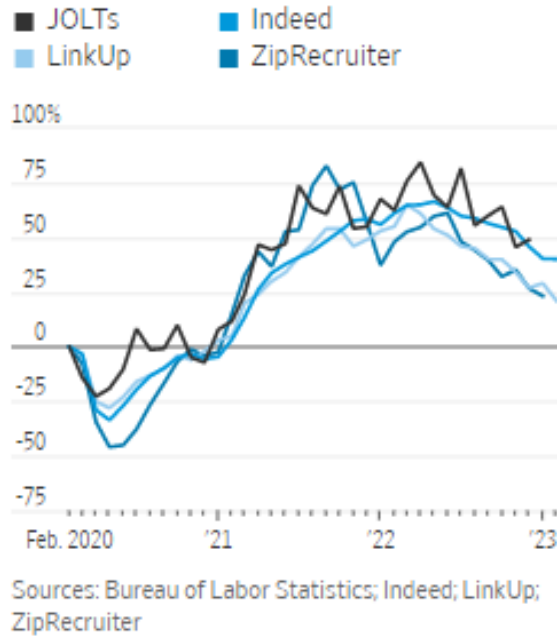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Long-Robust U.S. Labor Market Shows Signs of Cooling**

#### **미국 노동 시장 둔화 신호 보인다**

- 민간 분야 일자리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최근 일자리 보고와는 달리 민간 주요 온라인 채용 서비스 회사들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
- 2개 대형 온라인 채용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는 연방 노동부 자료 보다는도 일자리 공고 숫자가 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b openings, percentage change since February 2020



- 한편 연방 노동부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수치는 1월 일자리 공고 건수, 2월 일자리 증감 숫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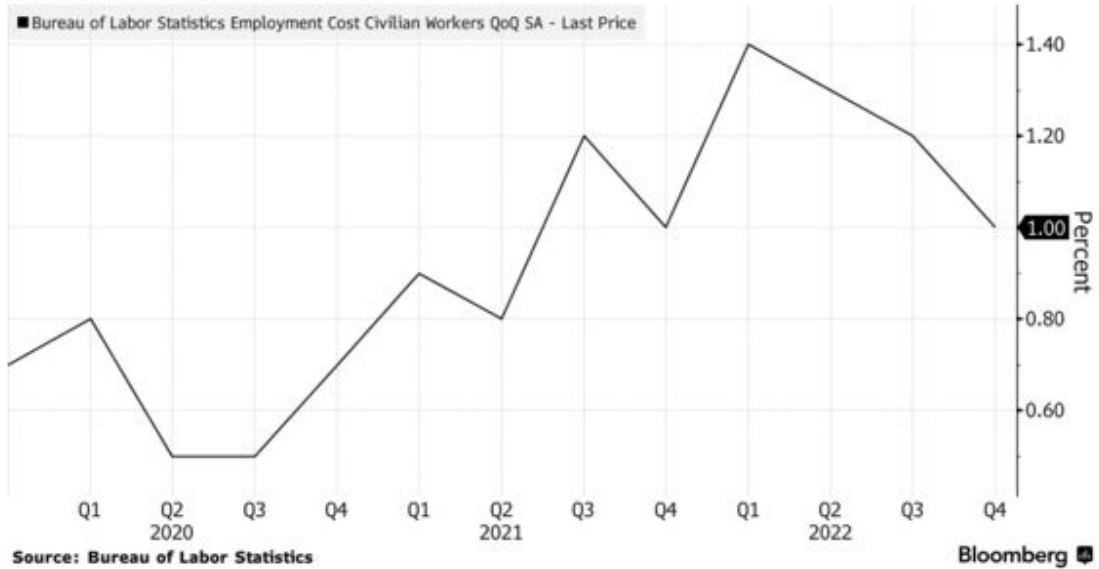
WSJ 기사

### Bloomberg: Fed's Soft Landing Hinges on a Wage Inflation 'Head Scratcher'

#### 미 연착륙은 임금 인플레이에 달려있다

- 미 실업률이 지난 53년 동안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압력을 둔화하고 있다.
- 만약 고용주가 일자리 채용과 유지를 계속한다고 해도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하면 정책 당국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압박감이 줄어들 수 있다.
- 어쨌든 임금과 수당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Slowing Wage Growth



- Moody’s Analytics 선임 이코노미스트 Mark Zandi는 고용주들과 종업원들 모두 인플레이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임금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 가솔린 가격 하락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를 반영하는 이른바 ‘생활비 하락 기대감’ 때문에 임금 수요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게 되고, 연준 입장에서는 노동 시장에 타격을 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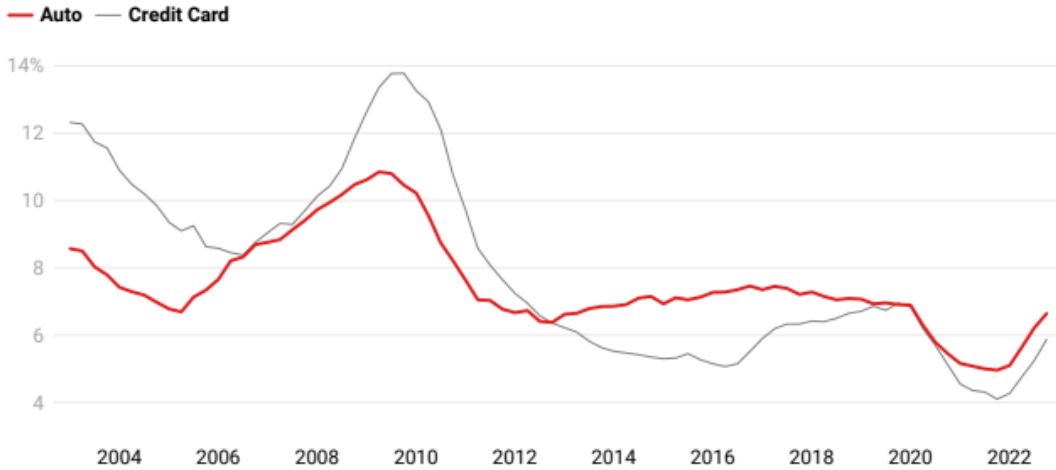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 Time지: The U.S. Economy Is Doing Too Well. Why That’s Bad for People Who Aren’t Rich

#### 미 경제 좋지만, 저소득층에게 힘들어

- 각종 경제 지표는 현재 좋다. 견고한 미 경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런데 1월 소비 물가는 5.4%로 높다. 2% 목표치 도달을 위해 연준이 애쓰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결국 경제와 소비자는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을 따라가게 되었다.
- 문제는 소득 계층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를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계층은 상위 50%. 식당 체인 Daren Restaurants는 "가계 소득이 5만불 미만의 가구는 외식이 줄고 있다"고 전한다.
- 반면에 소득 계층 50% 아래는 크레딧 카드빚도 많고, 연체율도 높다. 한마디로 계층 간에 서로 벌어지는 K 소비 패턴이다.

### The share of loans that are 30 or more days delinquent is rising again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전체 소득층 중에 상위 40%가 전체 소비지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집에 있으면서 팬데믹 중에도 돈을 축적한 계층으로 이들의 소비 점유율은 높아졌다.
- 그러나 저소득층은 부채나 크레딧 카드 잔고를 갚지 못하고, 외식도 덜 하게 된다. 저소득 가구의 소비력은 상실될 수 있다.
-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한마디로 가구 금융은 현재 건강하지만, 기반에 균열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여진다.

Time 기사

### Bloomberg: Car Debt Is Piling Up as More Americans Owe Thousands More Than Vehicles Are Worth 미국인 자동차 부채가 쌓이고 있다

- 자동차 가격보다 더 많은 해당 부채 때문에 소비자들이 힘들고, 해당 자동차 산업에서 스스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자동차를 바꾸는 이른바 ‘트레이드 인’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 관련 조사 Edmund에 따르면 평균 새차 이자율은 1년 전 4.3%에서 1월 6.9%로 상승했다. 자동차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수요는 높으며 재고 수준은 상대적으로 현재 낮은 상황이다.
- 새차 가격은 팬데믹 시작 때와 비교해 20% 올랐고, 중고차는 동기간 37% 상승했다. 작년 가을에 인상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 반면에 Ford Motor Co., General Motors Co.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는 계속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Reuters: Dollar slides, yuan gains on China PMI; hot inflation lifts euro**  
현재 달러 약세, 위안화와 유로화는 강세

- 오늘 달러 지수는 주요 통화 바스켓과 비교해서 0.295% 떨어졌다. 2월 1일 이래 하루 단위로는 낙폭이 가장 큰 날이다.
- 위안화는 상승. 중국 제조 활동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유로화도 상승했다. 지난달 독일의 인플레이가 크게 났는데다 유로존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이다.
- 엔화는 달러 대비 0.05% 절하되었다. 달러가 2월에 엔화 대비 5% 상승한 후에 이렇게 절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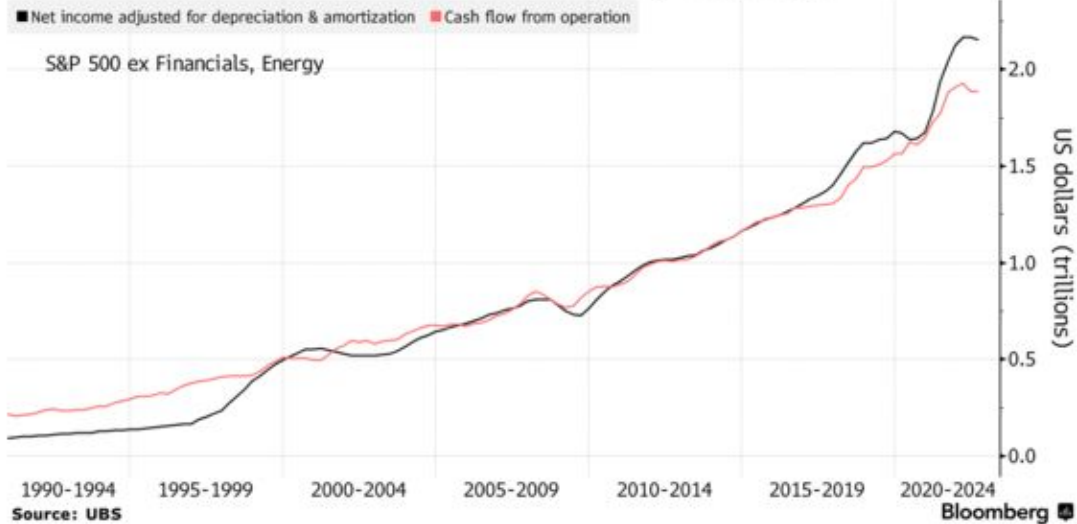
Reuters 기사

**Bloomberg: Corporate America's Earnings Quality Is the Worst in Three Decades**

## 미 기업들의 질적인 수익은 30년 만에 최악

- 미국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 UBS Group AG가 집계한 금융 및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관련 지수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를 조정한 S&P 500 기업의 수익은 9월까지 영업 현금 흐름을 14% 앞질렀다.
- 즉, 수익 1달러당 현금 유입은 88센트에 불과했으며, 이는 최소 1990년 이후 가장 큰 차이이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까? 첫째, 회사로 완전히 지불되기 전에 회사에 빚진 돈이 판매로 기록된다. 둘째로 재고가 쌓이면서 상품 생산 비용이 재고가 소비되는 현금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이다.
- 한편 Russell 3000중에 3분의 1인 돈을 버는데 허덕이고 있다.

### Corporate America's Earnings Quality Worsens Most S&P 500 firms see cash flows trail earnings by a big margin



Bloomberg 기사

#### [부동산]

### CNBC: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drops to a 28-year low 미 주택 모기지 수요, 28년래 최악

-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3주 연속 떨어졌다.
-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 전주에 비해 6%가 떨어졌다. 모기지율이 지난달에 0.5%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 모기지율은 4%대였다.
- 30년 고정 모기지가 6.62%에서 6.71%로 상승했다.

CNBC 기사

#### [Covid 19]

### Bloomberg: FBI Director Wray Says Covid-19 Likely Came From Chinese Lab FBI 국장, “코로나19 중국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 높다”

- 미 FBI 국장 Christopher Wray가 이번 주 화요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미 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동물에 의한 것인지, 우한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따라서 Wray의 최근 발언은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고 단정 짓는 유일한 공식 기관의 주장인 것이다.

-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와 과학계가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미국은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고, 코로나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 **SCMP: China no longer a top 3 investment destination for most US firms amid mounting business challenges**

**미 기업들, “중국 더 이상 상위 3대 투자처 아니다”**

-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 중 45%만 중국을 3대 글로벌 단기 투자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응답 비율은 지난해의 60%보다 크게 줄어든 것. 한마디로 25년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상위 3대 투자처로 꼽지 않은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 한편 45%는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회원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줄이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원인으로서는 1)중국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과 2)경제 성장 둔화, 3)미중 관계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 한편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연이은 도시 봉쇄 등으로 인재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SCMP 기사

#### **CNBC: MSC, world’s biggest shipping company and U.S.-China trade bellwether, isn’t talking like a recession is coming for economy**

**세계 최대 해운사 MSC, “세계 경제 낙관적이다”**

-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사 MSC가 올해 세계 무역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또 2분기가 접어들고 2023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MSC의 CEO Soren Toft 는 북미와 유럽에 여전히 재고가 많지만 재고가 줄어들면 화물 시장이 반등할 것이며, 중국과 유럽 간 무역 루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를 줄이고 강력한 고용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 한편 해운업계는 해양 운임이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요 감소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탓에 선박 용량을 줄이거나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재고가 몰리며 공급망 혼란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BC 기사

### [IT 향후 추세]

## Fast Company: The biggest tech trends of 2023, according to over 40 experts

### 전문가 40명이 선정한 2023년 주목할 IT 동향

#### 1. AI와 로봇 공학: AI AND ROBOTICS

- 2023년에는 다양한 오픈 소스 AI 모델이 업계 전반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 생성적 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콘텐츠 언어 장벽이 완전히 해결되며, 인간이 만든 것과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인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AI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 수많은 새로운 AI 모델과 사용자 경험, 허위 정보, 저작권,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다.

#### 2. 가상 세계: VIRTUAL SPACES

- 더 많은 기업들이 3D V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 3D 시각화의 저비용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소매업계에서 3D를 더 광범위하게 채택한다.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스캔할 수 있게 된다.
- 메타버스는 현재 기업 CIO, CTO의 주요 의제이며, 경영진의 66%가 메타버스를 통한 지속적인 비즈니스 창출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3. 가상화폐 및 \*Web3: CRYPTO AND WEB3

- Ethereum Virtual Machines (EVMs)이 구축자 간 네트워크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면서, \*\*이더리움이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다.
- Web3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해 고객과 커뮤니티에 제공하게 된다.
- 2022년의 암호화폐 혼란 이후, "crypto winter"가 찾아오면서 오히려 책임감 있고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Web 3.0(decentralized Web, 탈중앙화 웹): 블록체인(blockchain)과 같은 분산화 기술을 사용해 웹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형태의 웹으로, 비트코인과 같이 중개인 없이도 사람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일종

#### 4. 사이버 보안: SECURITY

- AI와 머신 러닝을 통해 사이버 위협을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며, 다가올 위협과 사건을 예측하고, 관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클라우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
- DA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ChatGPT와 같은 AI 챗봇을 악용한 고도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 5. 스타트업과 투자: STARTUPS AND INVESTING

- 뛰어난 테크 업계 인재들이 빅테크에서 해고되면서 더 많은 스타트업에 합류하게 될 수 있다.
- 팬데믹 시기 Uber, AirBNB 등이 새롭게 성장한 것처럼 다가오는 침체기에 어떤 종류의 사업이 번창할 것인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 6. 하이브리드 근무: HYBRID WORK

- 2023년에는 생산성, 협업, 데이터, AI,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workflow 자동화를 융합한 더 다양한 업무 방식이 활용된다.
-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점차 팀을 통합하고 데이터를 연결해 자율적이면서도 조정된 방식으로 업무하게 될 것이다.
- 하이브리드 작업 공간을 위한 적절한 환경, 도구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에너지: ENERGY

- 지속 가능한 생산을 이루는 것은 2023년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기업은 포장뿐만 아니라 제조, 배송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재고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에 재집중하게 될 것이다.
-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비롯해 e-bike, 냉/난방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도시 인프라가 개발될 것이다.

## 8. 창작자 경제: CREATOR ECONOMY

- 창작자들은 TikTok, IG Reels 및 YouTube Shorts와 같은 짧은 동영상 중심의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
- AI와 인간 창의력의 결합은 인간만의 결과물보다 더 나은 품질과 양의 창조물을 낳을 수 있다. 창조적 인공지능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9. 의료 및 웨어러블: HEALTH AND WEARABLES

- 팬데믹 초기 급증했던 원격 의료가 정신 건강 분야에 한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상 진료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다리가 될 것이다.

## 10. 테크 규제: TECH REGULATION

- Right to Repair(직접 수리할 권리): 기업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정보, 부품 및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Tech Antitrust(기술 독점 금지): 앱 스토어에 없는 유용한 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독점적인 기업 정책을 방지해야 한다.
- AI regulation(AI 규제):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가 사회 전반에 어렵게 구축한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꼭 필요하다.

(번역: 인턴 백승아)

Fast Company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YouTube to Add AI-Powered Tools for Video Creators, New CEO Says**

##### **유튜브, 크리에이터 위한 AI 기반 도구 추가**

- 유튜브가 향후 몇 달 안에 유튜브 영상 제작자를 위한 생성적 AI 기반 도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취임한 CEO Neal Mohan은 밝혔다.
- 유튜브가 계획 중인 AI 도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속 의상을 가상으로 바꿔 입거나 “환상적인 영화적 설정(fantastical film settings)”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한편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은 최근 몇 달간 ChatGPT를 비롯해 테크 경쟁사에서 출시한 AI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생성적 AI 출시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바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Wendy's Targets Sales Growth Amid Restructuring**

##### **Wendy's, 매출 성장 위해 구조조정 단행**

- 패스트푸드 체인 Wendy's가 이번 주 수요일 발표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전체 매출 성장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 Wendy's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들도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비용 절감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맥도날드 역시 4월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한편 Wendy's는 2023년 글로벌 매출이 6~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분기 수익은 13.4% 증가한 5억 3천 6백60만 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반도체지원 '당근'으로 中과 디커플링 압박...  
한국의 선택은"**

## "삼성전자, 보조금 최대 3.4조원 예상...까다로운 조건에 업계 고심"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미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과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보조금에 한도는 없지만,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